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 조사 연구*

김 귀 분**

I. 서 론

현대과학의 급속한 발전은 거대한 축적분량을 낳았으며, 이와 같은 기술혁명은 인류로 하여금 새로운적
신적 문제에 직면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생
활상식, 인간상식, 사회정리의 네면적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생활의 다양화 내지 복잡화로 인
하여 인간의 정서에 위험을 받고 있음을 보인한 수많
은 사실이다. 5)

이와 동시에 인간의 평균수명은 급진적인 의학발
달, 경제수준의 향상과 사회문제의 발달됨에 따라 점
차적으로 연장되고 있으며, 사망을 또한 미국(9,7)
보다 더 감소(9,0%)되었었다. 6)

노인이라는 특수연령 그룹에는 다양한 을 고려
히 많다. 65세를 기준으로 신체적 변화와 부터

답나한 노인간호 문제조에도 특허 사회적지지로

*1977학년도 성의대학교 대전간호학과 석사논문, 지도 : 김광주교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2) 이윤숙, 노인문에 대한 연구, 단행본, 동국대학교, 1976. p. 239.
3) Brunner, Medical - Surgical Nursing, New York, Lippincott, 1970. PP. 43 ~ 47.
수 있는 노인명과,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대상으로 두
회전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노인대학, 즉 노
인정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비해 집단의 성적이고 다사
고 경제적 사회적 정서가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노
인대학에서 나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주
체적인 특성을 했다.

체에 노인정노인과 노인대학 노인의 죽음에 대한 발
은에서 그 차이점에 비해 보았다.

체에 노인정노인과 노인대학 노인을 합하여 그들의
교육정도별, 종교별, 배우자 생존 유무별에 따른 죽
음에 대한 비중을 비교해 본다면.

상과 같은 목적이에 인간이라면 본질 좋은 누구
나 맞이야 하는 죽음에 대하여, 특히 젊은세대보다
는 더욱 가까워져 온듯한 느낌으로 생활하는 그들은
생각이나 태도를 알아โดยเฉพาะ, 노인들의 전강판
의식적 및 노인학적으로 필요한 기후자료를 얻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A. 노인심리

노인은 어린이와 같이 숨나가는 것은 그만의 적절
적인 성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의 심리나
요구를 말해 있어서도 이와 같은 연구와 정신건강에
따라 다양하며, 노인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 반응양상
이 다르리라 본다.

Maslow6*의 5가지 기본연구(basic Needs)에 대한 노
인적응을 보면, ① 신체적 및 생리적 요구(Physiological Needs),
② 안전에 대한 요구(Safety Needs),
③ 사회적 집단에 소속하고 성립 요구 및 이성적의 요구
(Belongingness and love Needs), ④ 자아개념에 대한 요구
(Esteem Needs), ⑤ 자아결정 상태에 대한 요구
(Needs for self-Actualization)이다.

여기에 빠져 나머지 절은이 되면 노인 노인식의 일반적으로 장
수유리를 원하고 있다. 젊은이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침착하지 않으므로 장수에 관한 문제는 고려대상이아
지난 노인사 Berm가 설계시 않겠고 동그랗게 벌
나 돌빛 죽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므로 죽음을
상실하게 된다.7 더욱이 노년기에 이르면 각종 예기성
감소, 신체기능의 활동력 감소, 학습능력의 저하로 인
한 신체적 변화가 기여한 장애와 정신적 능력의 감소,
신체적 저산에 의한 변화와 민감성을 이용한 변화는 노인의 개개인의 신체
적 활동과 건강(Stress)에 전달하는 능력 및 환경의 변
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감소 시킨다고8 코hen은
말하고 있다.

인간은 현재는 커다랗게 어리분에 처해 있어서 만들
으로 이와 같은 상태가 개선되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
할 수는 있다는 맥락이 있으면 현재의 상태는 충분히
이겨낸 능력이 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불편을 느
끼는 많은 노인들은 이러한 일상의 회복을 찾기보다는소
위로 지내고, 외로워하며, 응용하고, 의미없는 삶의 끝
을 앓는 생각을 갖기 쉬운 것이다.9

특히 원일 만성질환인 현실사회에서 '노인이 불무
없다'는 판단하여 국가적, 사회적, 가정적으로 사회
방하는 경향이 있다.10

노인들의 이러한 소외감은 가족과 친구로부터 혹은
남에게 관심이 예정을 갖추지 못한다. 때로는 이런
한 경우는 이성적 이성적에 귀환이 되며 많은 노인들은 신체
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illusion Game)하게 되는 것'11
이라고 DAvie는 말하고 있다.

B. 죽음의 개념

가끔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도 삶을 계속하기로
주로 생각하고 출려가며, 또한 그 순간 순간에 쏟는하
면서도 때로는 현재의 병인이 죽어가 할 문제에 놓이
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받아 들이기도 하
고, 거절하기도 하고, 부담한다고 소리치다가는 사
실을 두려워하며, 승리하며, 구원을 요청하더라고 결국은
절망하게 되는 것이다.12

Freud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계속 피하
다가 더 이상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될때 크게 충격을
반아 고민에 빠진다"13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죽음에 대한 느낌은 성격학적을 통해가 지속되며, 삶의 길은 긴급한 애로가 남아 있어, 생의 마지막에는 자각하게 되는 것이며, 이 죽음에 대한 견해는 죽음의 종류, 죽음이 일어나는 현장, 종교, 문화적 배경, 철학, 생활경험 등에 따라 다른 개념을 가진다. 즉, 종교적 전통이나 철학적 신념은 죽음의 개념을 받아 들이는데 용이하며 공명적이다. 어떤 어느 일적학교 어린이는 더 오래 살아야 하는 불풍경한 처지, 또는 죽음은 정년과 수석의 두 단으로, 새로운 세계로의 도피, 폐화스러운 잠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생각하는 이의 약탈수단인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개념은 자가 다르나, 표준화된 죽음에 대한 몹시 인간 경험의 여러가지와 흔히 않고, 또한 노인은 젊은이 보다 더욱 죽음에 대한 광범위하게 이해되며, 사망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도 죽음과 연결되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끔은 죽음에 대하여 대단히 강한 부정을 나타내기도 한다.

Kübler-Ross는 죽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다섯 단계로 분류하여 서술하였다. 첫 단계는 부정과 고립(Denial and Isolation) 단계로 이는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라는 그 자체를 단순히 기술하고 부정하며,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두번째 단계는 분노(Anger)의 단계로 죽음이 임박함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음을, 살아 남는 것에 대한 분노, 불평, 원망 및 경애에 대한 선망과 애정이 함께 생겨지는 것이다. 이 분노의 대상은 신이다. 세번째 단계는 설명(Dealing)의 단계로 신이나 의학, 교육과의 교섭을 의미하는데 인생을 향후성 또는 질적인 해법 존재에 의지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네번째 단계는 용용(Repression)의 단계로 죽음이 임박한 자신의 처지에, 절마로 인해 신체 어느 부분의 손실에 의한 용용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 이견하는 사람을 요구하게 된다. 다섯째 단계는 수용(Acceptance)의 단계로 자신의 죽음을 받아 들여서 무감각, 무표정한 상태로 특정한 것이나 앞에 설명한 시술이지 않은 죽음은 기대어다. 이때 주의는 죽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한 흥미로운 예시로 조용히 죽음을 허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David는 "사랑하는 것이나 사람들로부터 격려 되었을 때의 아픔은 걱정할 것이며, 신체적인 어려움의 탐색보다 더 예의한 아픔을 느끼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인간은 죽음 그 자체보다 어려운 것이나 사물, 모든 것을 상상한에 더 큰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 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처하는 여러 노인들과 비해 사람과 자비와 인내로 포용함으로, 그들의 삶의 묵념이 담긴것이며, 폐화로운 감정으로 받아 들일 수 있도록 많은이 모두는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I. 조사대상 및 방법

A. 조사대상
본 연구는 무작위 표집(Random Sampling)에 의거시을 서울시 일부 5개소 노인관 185명과 3개의 노인대학 109명 총 354명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으며, 시리즘화된 설문지를 노인관에 185개 배부하여 100% 회수율을 보였고, 노인대학에는 215개 배부하여 171개 회수하여 78.6%의 회수율로 보였으나 그중 사망자, 참여자, 부참여자 15명은 삭제하여 실제 통계에 사용된 것은 총 354명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1977년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였고, 노인관은 직접 방문하여 즉시 그 자리에서 수집하였으며, 노인대학은 배부 1주후에 수집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표가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 대상별, 연령별 분포가 고르지 못함이 특징이었다.

B. 조사도구 및 분석 방법
본 조사도구는 미국 행동과학 연구소의 Edwin Sc-
표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table>
<thead>
<tr>
<th>특 성</th>
<th>노인 정 노인대학 제</th>
</tr>
</thead>
<tbody>
<tr>
<td>인수 비율(%)</td>
<td>인수 비율59</td>
</tr>
<tr>
<td>성</td>
<td>남</td>
</tr>
<tr>
<td></td>
<td>여</td>
</tr>
<tr>
<td>계</td>
<td>185</td>
</tr>
</tbody>
</table>

| 년 경 | 60~64세 | 54 | 30 | 65 | 38 | 119 | 33.6 |
| | 65~69세 | 61 | 33 | 54 | 37 | 115 | 32.5 |
| | 70~74세 | 49 | 26 | 36 | 21 | 85 | 24.0 |
| | 75~79세 | 15 | 8 | 11 | 7 | 26 | 7.4 |
| | 80~90세 | 6 | 3 | 3 | 2 | 9 | 2.5 |
| 계 | 185 | 100 | 169 | 100 | 354 | 100 |

| 고용 | 무 학 | 24 | 13 | 20 | 12 | 44 | 12.4 |
| | 초 학 | 58 | 31 | 63 | 37 | 121 | 34.2 |
| | 중 학 | 90 | 49 | 75 | 44 | 165 | 46.6 |
| | 전문이상 | 13 | 7 | 11 | 7 | 24 | 6.8 |
| 계 | 185 | 100 | 169 | 100 | 354 | 100 |

| 종 교 | 기독교 | 22 | 12 | 19 | 11 | 41 | 11.6 |
| | 천주교 | 10 | 5 | 6 | 4 | 16 | 4.5 |
| | 불 교 | 71 | 38 | 52 | 31 | 123 | 34.7 |
| | 무 교 | 33 | 15 | 37 | 22 | 70 | 19.0 |
| 계 | 185 | 100 | 169 | 100 | 354 | 100 |

| 배우자 생존 유무 | 유 | 116 | 63 | 118 | 70 | 234 | 66.1 |
| | 무 | 69 | 37 | 51 | 30 | 120 | 33.9 |
| 계 | 185 | 100 | 169 | 100 | 354 | 100 |

이 문헌의 설명은 논의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사전접수를 실시하여 분석결과 완료 나열 및 여기게를 다시 수행한 것으로 보았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하였으며, 노인 정과 노인대학으로 구분하여 문항별 반응범도와 반응 응을 산출하여 전체적인 점점을 보았으며, 위험성 test로 두 집단의 유의성 검정을 하였고, 대상자 전체의 교육경도별, 종교별, 배우자 생존 유무별 반응율 및 반응율의 유의성을 x2-test로 검정하였다.

IV. 연구성적 및 고찰

A. 죽음에 대한 개념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죽음을 알게 된 시기에 대한 전체적인 노인이 응답자의 48.2%에서 “5~10년” 다음으로 31.6%에서 “10~20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정리의 노인정에서는 22.7% 가 “적”으로 생각하였으며, 노인대학에서는 22.5% 가 “우수”로 하여 보고하였다. 죽음에 대한 개념의 반영은 5년까지만 죽음을 잃고 마음을 하게 되어 사람을 더 가는 무서운 사람으로 여기게 되며, 이 시기 이후 라는 의미로 죽음은 야만하며 우리 모두에게 의할 수 없이 일어나는 보편적인 과정으로 인식되는[22] 이 문헌의 부합성을 확인하였다.

징정한 이후 죽음의 의미를 “자연적으ظم히운의 아름다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라는 응답율이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9%에서 “정형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 문헌에 대한 응답자의 교육경도별, 종교별, 배우자 생존 유무별 유의성 검정결과 종교별, 배우자 생 존 유무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표 3 참조).

24) 천산춘희, "죽음과 삶 가정이 없는 화자에 대한 객관생활과 객관적인 해도 조사 연구," 객관적논집, 연대간학회 연구소, 제 1집, 1975년, pp. 117~143.
표 2. 죽음에 대한 개별

<table>
<thead>
<tr>
<th>문</th>
<th>항</th>
<th>노인 정</th>
<th>노인 대학</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인 수 비율(%)</td>
<td>인 수 비율(%)</td>
<td>인 수 비율(%)</td>
</tr>
<tr>
<td></td>
<td></td>
<td>인 수</td>
<td>비율 (%)</td>
<td>인 수</td>
</tr>
<tr>
<td>1. &quot;사람은 죽는다&quot;라는 것을 알게 된 시기</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 5세 미만</td>
<td></td>
<td>9</td>
<td>4.9</td>
<td>9</td>
</tr>
<tr>
<td>2) 5~10세</td>
<td></td>
<td>57</td>
<td>30.8</td>
<td>64</td>
</tr>
<tr>
<td>3) 10~20세</td>
<td></td>
<td>55</td>
<td>29.7</td>
<td>57</td>
</tr>
<tr>
<td>4) 20세 이상</td>
<td></td>
<td>64</td>
<td>34.6</td>
<td>39</td>
</tr>
<tr>
<td>계</td>
<td></td>
<td>185</td>
<td>100</td>
<td>169</td>
</tr>
<tr>
<td>2. 어려서의 죽음에 대한 견해</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 감상과 자극</td>
<td></td>
<td>24</td>
<td>13.0</td>
<td>22</td>
</tr>
<tr>
<td>2) 해 어 집</td>
<td></td>
<td>22</td>
<td>11.9</td>
<td>11</td>
</tr>
<tr>
<td>3) 꼬</td>
<td></td>
<td>42</td>
<td>22.7</td>
<td>26</td>
</tr>
<tr>
<td>4) 정신적 육체적 활동의 정지</td>
<td></td>
<td>28</td>
<td>15.1</td>
<td>23</td>
</tr>
<tr>
<td>5) 신 비</td>
<td></td>
<td>13</td>
<td>7.0</td>
<td>18</td>
</tr>
<tr>
<td>6) 무성교 두여로 것</td>
<td></td>
<td>20</td>
<td>14.1</td>
<td>38</td>
</tr>
<tr>
<td>7) 아무 생각도 없었다</td>
<td></td>
<td>30</td>
<td>16.2</td>
<td>31</td>
</tr>
<tr>
<td>계</td>
<td></td>
<td>185</td>
<td>100</td>
<td>169</td>
</tr>
<tr>
<td>3. 현재의 죽음의 의미</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 자연현상으로 삼의 마지막 과정</td>
<td></td>
<td>92</td>
<td>49.7</td>
<td>70</td>
</tr>
<tr>
<td>2) 내재의 시각</td>
<td></td>
<td>17</td>
<td>9.2</td>
<td>16</td>
</tr>
<tr>
<td>3) 유의한 장</td>
<td></td>
<td>37</td>
<td>20.0</td>
<td>42</td>
</tr>
<tr>
<td>4) 신의 부름</td>
<td></td>
<td>30</td>
<td>16.2</td>
<td>28</td>
</tr>
<tr>
<td>5) 영원으로 부터 오는 것</td>
<td></td>
<td>9</td>
<td>4.9</td>
<td>12</td>
</tr>
<tr>
<td>6) 무 음 담</td>
<td></td>
<td>0</td>
<td>0</td>
<td>1</td>
</tr>
<tr>
<td>계</td>
<td></td>
<td>185</td>
<td>100</td>
<td>169</td>
</tr>
</tbody>
</table>

\[ X^2 = 18.3224, \ df = 5, \ p < 0.01 \]

B. 죽음에 대한 태도

1. 죽음에 대한 반응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의 죽음을 설이하는 이유를 응답자의 39.6%가 "가족 친지와의 예지함이 설이성"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24.0%가 "체험이나 죽이가 아픈 감정의 미비"로 나타났으며, 또한 극소수에서 사후 신체 변화에 대한 두려움(4.2%)으로 나타났고 노인과 노인대한보다 더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한 유의성 경계선과 통제적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 (X^2 = 25.5470, \ df = 6, \ p < 0.01) \)이었다. 이렇게 깔랐던이 없다는 진단이 그 사례를 응답자의 57.9%에서 알려 주기를 원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2. 죽음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죽음의 태도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례는 응답자의 29.4%가 "가족의 죽음"을 통해서 21.8%가 "가까운 친구의 죽음"이라고 응답하였다.

유의한 연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28%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라 반응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이는 높은 점을 떠나서 죽음을 가장 결심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느끼는 사례는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인 것으로 사료된다.

죽음을 사망과 느끼기로 결심 여부에는 응답자의 79.9%가 "있다"는 대표적이었으며 노인대하는 노인정 보다 더 강한 반응을 보였다 \( (X^2 = 5.5935, \ df = 1, \ P < 0.05) \).

죽음 사망은 영정의 이유를 28.3%에서 "경계적 인 존재"로 두고 20.5%에서 "정신적 공포"로 나타내고 있었다. 3번째의 이유로는 18.0%에서 "신체적
표 3. 죽음에 대한 반응

<table>
<thead>
<tr>
<th>문항</th>
<th>노 인 정</th>
<th>노 인 대학</th>
<th>제</th>
<th>인수</th>
<th>%</th>
<th>인수</th>
<th>%</th>
<th>인수</th>
<th>%</th>
</tr>
</thead>
<tbody>
<tr>
<td>1. 인간이 죽음을 이해하는 이유</td>
<td></td>
<td></td>
<td></td>
<td>13</td>
<td>27.0</td>
<td>22</td>
<td>13.0</td>
<td>35</td>
<td>9.9</td>
</tr>
<tr>
<td>1) 다른 경험을 할 수 없기에</td>
<td></td>
<td></td>
<td></td>
<td>7</td>
<td>3.8</td>
<td>8</td>
<td>4.7</td>
<td>15</td>
<td>4.2</td>
</tr>
<tr>
<td>2) 사후 신체에 대한 두려움</td>
<td></td>
<td></td>
<td></td>
<td>96</td>
<td>51.9</td>
<td>44</td>
<td>26.0</td>
<td>140</td>
<td>39.6</td>
</tr>
<tr>
<td>3) 가족 치사와의 떨어짐이 싫어서</td>
<td></td>
<td></td>
<td></td>
<td>10</td>
<td>544</td>
<td>17</td>
<td>10.1</td>
<td>27</td>
<td>7.6</td>
</tr>
<tr>
<td>4) 죽음 과정의 고용 때문에</td>
<td></td>
<td></td>
<td></td>
<td>37</td>
<td>20.0</td>
<td>48</td>
<td>28.4</td>
<td>85</td>
<td>24.0</td>
</tr>
<tr>
<td>5) 세월이나 목적달성의 미비</td>
<td></td>
<td></td>
<td></td>
<td>21</td>
<td>11.4</td>
<td>29</td>
<td>17.2</td>
<td>50</td>
<td>14.1</td>
</tr>
<tr>
<td>6) 혼자가는 삶이기에 피코워지</td>
<td></td>
<td></td>
<td></td>
<td>1</td>
<td>0.5</td>
<td>1</td>
<td>0.6</td>
<td>2</td>
<td>0.6</td>
</tr>
<tr>
<td>7) 무 영 덮</td>
<td></td>
<td></td>
<td></td>
<td>185</td>
<td>100</td>
<td>169</td>
<td>100</td>
<td>354</td>
<td>100</td>
</tr>
<tr>
<td></td>
<td>X² = 25.5470. df = 6. p &lt; 0.0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표 4. 죽음의 태도에 영향을 가진 요인

<table>
<thead>
<tr>
<th>문항</th>
<th>노 인 정</th>
<th>노 인 대학</th>
<th>제</th>
<th>인수</th>
<th>%</th>
<th>인수</th>
<th>%</th>
<th>인수</th>
<th>%</th>
</tr>
</thead>
<tbody>
<tr>
<td>1. 현재 죽음의 태도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항</td>
<td></td>
<td></td>
<td></td>
<td>56</td>
<td>30.3</td>
<td>48</td>
<td>28.4</td>
<td>104</td>
<td>29.4</td>
</tr>
<tr>
<td>1) 가족의 죽음</td>
<td></td>
<td></td>
<td></td>
<td>42</td>
<td>22.7</td>
<td>35</td>
<td>20.7</td>
<td>77</td>
<td>21.8</td>
</tr>
<tr>
<td>2) 가까운 친구의 죽음</td>
<td></td>
<td></td>
<td></td>
<td>10</td>
<td>5.4</td>
<td>22</td>
<td>13.0</td>
<td>32</td>
<td>9.0</td>
</tr>
<tr>
<td>3) 장례식</td>
<td></td>
<td></td>
<td></td>
<td>21</td>
<td>11.3</td>
<td>20</td>
<td>11.8</td>
<td>41</td>
<td>11.6</td>
</tr>
<tr>
<td>4) 자신의 전망이나 신체적 조건</td>
<td></td>
<td></td>
<td></td>
<td>7</td>
<td>3.8</td>
<td>3</td>
<td>1.8</td>
<td>10</td>
<td>2.8</td>
</tr>
<tr>
<td>5) 선례의 교육</td>
<td></td>
<td></td>
<td></td>
<td>7</td>
<td>3.8</td>
<td>3</td>
<td>1.8</td>
<td>10</td>
<td>2.8</td>
</tr>
<tr>
<td>6) 특별한 계</td>
<td></td>
<td></td>
<td></td>
<td>17</td>
<td>9.2</td>
<td>12</td>
<td>7.1</td>
<td>29</td>
<td>8.2</td>
</tr>
<tr>
<td>7) 종교적 교육</td>
<td></td>
<td></td>
<td></td>
<td>24</td>
<td>13.0</td>
<td>26</td>
<td>15.4</td>
<td>50</td>
<td>14.1</td>
</tr>
<tr>
<td>8) 느끼보지 못했다</td>
<td></td>
<td></td>
<td></td>
<td>1</td>
<td>0.5</td>
<td>0</td>
<td>0</td>
<td>1</td>
<td>0.3</td>
</tr>
<tr>
<td>9) 무 영 덮</td>
<td></td>
<td></td>
<td></td>
<td>185</td>
<td>100</td>
<td>169</td>
<td>100</td>
<td>354</td>
<td>100</td>
</tr>
<tr>
<td></td>
<td>X² = 10.2068. df = 8. p &gt; 0.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표 4. 죽음의 태도에 영향을 가진 요인

<table>
<thead>
<tr>
<th>문항</th>
<th>노 인 정</th>
<th>노 인 대학</th>
<th>제</th>
<th>인수</th>
<th>%</th>
<th>인수</th>
<th>%</th>
<th>인수</th>
<th>%</th>
</tr>
</thead>
<tbody>
<tr>
<td>1. 현재 죽음의 태도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항</td>
<td></td>
<td></td>
<td></td>
<td>56</td>
<td>30.3</td>
<td>48</td>
<td>28.4</td>
<td>104</td>
<td>29.4</td>
</tr>
<tr>
<td>1) 가족의 죽음</td>
<td></td>
<td></td>
<td></td>
<td>42</td>
<td>22.7</td>
<td>35</td>
<td>20.7</td>
<td>77</td>
<td>21.8</td>
</tr>
<tr>
<td>2) 가까운 친구의 죽음</td>
<td></td>
<td></td>
<td></td>
<td>10</td>
<td>5.4</td>
<td>22</td>
<td>13.0</td>
<td>32</td>
<td>9.0</td>
</tr>
<tr>
<td>3) 장례식</td>
<td></td>
<td></td>
<td></td>
<td>21</td>
<td>11.3</td>
<td>20</td>
<td>11.8</td>
<td>41</td>
<td>11.6</td>
</tr>
<tr>
<td>4) 자신의 전망이나 신체적 조건</td>
<td></td>
<td></td>
<td></td>
<td>7</td>
<td>3.8</td>
<td>3</td>
<td>1.8</td>
<td>10</td>
<td>2.8</td>
</tr>
<tr>
<td>5) 선례의 교육</td>
<td></td>
<td></td>
<td></td>
<td>7</td>
<td>3.8</td>
<td>3</td>
<td>1.8</td>
<td>10</td>
<td>2.8</td>
</tr>
<tr>
<td>6) 특별한 계</td>
<td></td>
<td></td>
<td></td>
<td>17</td>
<td>9.2</td>
<td>12</td>
<td>7.1</td>
<td>29</td>
<td>8.2</td>
</tr>
<tr>
<td>7) 종교적 교육</td>
<td></td>
<td></td>
<td></td>
<td>24</td>
<td>13.0</td>
<td>26</td>
<td>15.4</td>
<td>50</td>
<td>14.1</td>
</tr>
<tr>
<td>8) 느끼보지 못했다</td>
<td></td>
<td></td>
<td></td>
<td>1</td>
<td>0.5</td>
<td>0</td>
<td>0</td>
<td>1</td>
<td>0.3</td>
</tr>
<tr>
<td>9) 무 영 덮</td>
<td></td>
<td></td>
<td></td>
<td>185</td>
<td>100</td>
<td>169</td>
<td>100</td>
<td>354</td>
<td>100</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인수</th>
<th>%</th>
<th>인수</th>
<th>%</th>
<th>인수</th>
<th>%</th>
</tr>
</thead>
<tbody>
<tr>
<td>185</td>
<td>100</td>
<td>169</td>
<td>100</td>
<td>354</td>
<td>100</td>
</tr>
<tr>
<td>X² = 10.2068. df = 8. p &gt; 0.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3. 축고 실다는 느낌의 이유

| 1) 목숨실 혹은 타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 3 2.2 11 7.6 14 5.0 |
| 2) 정신적 공포 | 30 21.6 28 19.5 58 20.5 |
| 3) 경제적 곤란 | 41 29.5 39 27.1 80 28.3 |
| 4) 신체적 질병이나 고통 | 29 20.9 22 15.3 51 18.0 |
| 5) 실패 혹은 당사 | 13 9.3 14 9.7 27 9.5 |
| 6) 고독감 혹은 자포자기 | 7 5.0 13 9.0 20 7.1 |
| 7)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나 사랑의 상실 | 6 4.3 6 4.2 12 4.2 |
| 8) 기정 불화 | 10 7.2 11 7.6 21 7.4 |
| 계 | 139 100 144 100 354 100 |

\[ X^2 = 39.7835, \ df = 7, \ p < 0.01 \]

4. 축고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생각에 미치는 역할

| 1) 상당히 중요한 역할 | 47 25.4 38 22.5 85 24.0 |
| 2) 중요한 역할 | 31 16.8 37 21.9 68 19.2 |
| 3) 적은 역할 | 5 2.7 13 7.7 18 5.1 |
| 4) 아무 역할도 없다 | 22 11.9 26 15.4 48 13.6 |
| 5) 생각해 보지 않았다 | 80 43.2 55 32.5 135 38.1 |
| 계 | 185 100 169 100 354 100 |

\[ X^2 = 9.2631, \ df = 4, \ p < 0.1 \]

* 3. 문항은 축고실다는 감정을 느낄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한하여 응답한 것임.

표 5. 실리적 준비

<table>
<thead>
<tr>
<th>문 항</th>
<th>노 인 정</th>
<th>노 인 비 합</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td>
<td>인 수</td>
<td>%</td>
<td>인 수</td>
</tr>
</tbody>
</table>

1. 자신의 축고 정확한 시기를 알기 원했던

<table>
<thead>
<tr>
<th>눈치에 대한 여부</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1) 원한다</td>
<td>68</td>
<td>36.8</td>
</tr>
<tr>
<td>2) 원하지 않는다</td>
<td>117</td>
<td>63.2</td>
</tr>
<tr>
<td>계</td>
<td>185</td>
<td>100</td>
</tr>
</tbody>
</table>

\[ X^2 = 33.0071, \ df = 1, \ p < 0.01 \]

2. 아름사랑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p>| | | |</p>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1) 이는 시립 모두 모여주기를</td>
<td>16</td>
<td>8.6</td>
</tr>
<tr>
<td>2) 가족들은 모두 모여주기를</td>
<td>120</td>
<td>64.9</td>
</tr>
<tr>
<td>3) 신부, 스님, 목사의 기도(불경)을 들고 싶다</td>
<td>19</td>
<td>10.3</td>
</tr>
<tr>
<td>4)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조용히 축고 싶다.</td>
<td>10</td>
<td>5.4</td>
</tr>
<tr>
<td>5) 아무래도 좋다.</td>
<td>20</td>
<td>10.8</td>
</tr>
<tr>
<td>계</td>
<td>185</td>
<td>100</td>
</tr>
</tbody>
</table>

\[ X^2 = 3.0489, \ df = 4, \ p > 0.05 \]
C. 죽음에 대한 준비

1. 심리적 준비

아직 50대의 38.1%에서 생각해 보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24.0%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로 나타났고 있었다. 노인들이 노인대학보다 더 강한 반응으로 나타나며 연구결과 10%선에서 의의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κ=9.3031, df=4, P<0.1).

유의 도 연구에 의하면 응답자의 81%가 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W. M. Swenson은 나이가 많은 사람은 30~40%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죽음을 정확한 시기를 알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는 인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극단적으로 좋은 죽음과도 부합한다고 보았다.

임흥식 주위 사람이 어떻게 해 주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반응은 응답자의 63.0%에서 가족들은 모두여 주기를 원한다고 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대조소의한 부분을 보였다.

2. 신체적 준비

주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후 신체 처리 방법으로 응답자의 70.1%가 “예장”을 원하였으며, 의사당 가장은 1.1%만 극소수였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이한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노인들의 관념의 배경을 제외한 다른 방법은 두 번째가이라는 전통적인 관념 배경으로 생각될 수 있다.

사후 장례이식에 대한 반응은 응답자의 3.4%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응답자의 62.7%에서 “예장이나 가족에게만” 주기를 원하였는데 노인장(69.2%)가 노인대학(55.6%)보다

<table>
<thead>
<tr>
<th>표 6. 신체적 준비</th>
</tr>
</thead>
<tbody>
<tr>
<td>번호</td>
</tr>
<tr>
<td>------</td>
</tr>
<tr>
<td>1.</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계</td>
</tr>
</tbody>
</table>

X²=4.4709, df=4, p<0.05

<table>
<thead>
<tr>
<th>2.</th>
<th>사후 장례이식에 대하여</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td>
<td>1) 예장이</td>
<td>14.0</td>
<td>45</td>
<td>26.6</td>
<td>71</td>
<td>20.1</td>
<td></td>
</tr>
<tr>
<td></td>
<td>2) 예장이</td>
<td>14.6</td>
<td>22</td>
<td>13.0</td>
<td>49</td>
<td>13.8</td>
<td></td>
</tr>
<tr>
<td></td>
<td>3) 예장이</td>
<td>2.2</td>
<td>04</td>
<td>55.6</td>
<td>222</td>
<td>62.7</td>
<td></td>
</tr>
<tr>
<td></td>
<td>4) 예장이</td>
<td>2.2</td>
<td>08</td>
<td>4.8</td>
<td>12</td>
<td>3.4</td>
<td></td>
</tr>
<tr>
<td>계</td>
<td></td>
<td>185</td>
<td>100</td>
<td>169</td>
<td>100</td>
<td>354</td>
<td>100</td>
</tr>
</tbody>
</table>

X²=11.4258, df=3, p<0.01

---
26) 김형석, op. Cit., pp. 32-41
27) 유계주, op. Cit.,
28) W. M. Swenson, Attitudes toward Death Among Aged, Minnesota Medicine, 1959.
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노인정에서
는 친구나 친척에게 주기를 헌정한 노인대학에서
는 아무에게나 주기를 헌정하고 반응하여 유의성 집
경결과 의의있는 결과(\(X^2 = 11.4258, \text{df} = 3, P < 0.01\))
를 발견하였다.

표 7. 사후 내세에 대한 태도

<table>
<thead>
<tr>
<th>문</th>
<th>노인 정</th>
<th>노인 대학</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1. 내세에 대한 견해</td>
<td>인수</td>
<td>%</td>
<td>인수</td>
</tr>
<tr>
<td>1) 꽤 의미</td>
<td>22</td>
<td>11.9</td>
<td>22</td>
</tr>
<tr>
<td>2) 있을 것이라</td>
<td>25</td>
<td>13.5</td>
<td>27</td>
</tr>
<tr>
<td>3) 절대로 없다</td>
<td>27</td>
<td>14.6</td>
<td>38</td>
</tr>
<tr>
<td>4) 잘 모르겠다</td>
<td>111</td>
<td>60.0</td>
<td>82</td>
</tr>
<tr>
<td>계</td>
<td>185</td>
<td>100</td>
<td>169</td>
</tr>
<tr>
<td>2. 환경설에 대한 견해</td>
<td>인수</td>
<td>%</td>
<td>인수</td>
</tr>
<tr>
<td>1) 절대히 믿는다</td>
<td>23</td>
<td>12.4</td>
<td>23</td>
</tr>
<tr>
<td>2) 절대 믿지 않는다</td>
<td>49</td>
<td>26.5</td>
<td>49</td>
</tr>
<tr>
<td>3) 잘 모르겠다</td>
<td>113</td>
<td>61.1</td>
<td>97</td>
</tr>
<tr>
<td>계</td>
<td>185</td>
<td>100</td>
<td>169</td>
</tr>
<tr>
<td>3. 제육에 대한 견해</td>
<td>인수</td>
<td>%</td>
<td>인수</td>
</tr>
<tr>
<td>1) 자전 편향을 하지 부정 부정</td>
<td>67</td>
<td>36.2</td>
<td>70</td>
</tr>
<tr>
<td>2) 가깝게 간소하게 그 중요 부정</td>
<td>85</td>
<td>45.9</td>
<td>65</td>
</tr>
<tr>
<td>3) 남비가 심하므로 없애야 한다</td>
<td>14</td>
<td>7.6</td>
<td>12</td>
</tr>
<tr>
<td>4) 종교적 의미에서 필요 없는 의식</td>
<td>10</td>
<td>5.4</td>
<td>15</td>
</tr>
<tr>
<td>5) 아무래도 좋다</td>
<td>9</td>
<td>4.9</td>
<td>7</td>
</tr>
<tr>
<td>계</td>
<td>185</td>
<td>100</td>
<td>169</td>
</tr>
</tbody>
</table>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후 내세에 대한 견해
에서 3일이 54.5%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었고
나머지 항목은 과거로 분포되어 있었다.
환경설에 대하여도 59.3%가 모든다는 응답이었으
며 노인정이 노인대학보다 더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문화환경에서 주용에 주목한 유·불사
상의 영향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절대자가 있다는 선
념으로 마음을 닫으면 현재가 곧 근력세계라고 하는

D. 사후 내세에 대한 태도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후 내세에 대한 견해
에서 3일이 54.5%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었고
나머지 항목은 과거로 분포되어 있었다.
환경설에 대하여도 59.3%가 모든다는 응답이었으
며 노인정이 노인대학보다 더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우리나라 문화환경에서 주용을 주목한 유·불사
상의 영향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절대자가 있다는 선
념으로 마음을 닫으면 현재가 곧 근력세계라고 하는

특별히 사후에 대하여 강조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육에 대한 견해에서 노인정(45.9%)이 노인대학
(38.5%)보다 더 강하게 “가깝게 그 중요 부정” 하
고 싶다는 반응이었으며, “자전 편향을 하지 부정”
하고 싶다는 반응은 노인정이 36.2%, 노인대학이
41.4%로 의견의 차이가 있음을 알았었다.

이 질문에 대한 교육정도별, 종교별, 배우자 생존
유무별 유의성 집계결과 종교별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을
발전한 수 있었다(\(X^2 = 49.09, \text{df} = 8, P < 0.01\))

이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아름답게 보여 있는 소
상 증세의 식인 제시가, 최대의 활력의 금로 배우고 익
혀졌으면 이해할 때도의 세대에 주목해 줄 만
한 사항이기도 하다.

**표 1. 죽음에 대한 개념성별 반응**

<table>
<thead>
<tr>
<th></th>
<th>교육정도별</th>
<th>종교별</th>
<th>배우자성별유무별</th>
</tr>
</thead>
<tbody>
<tr>
<td></td>
<td>부락</td>
<td>초등</td>
<td>중등</td>
</tr>
<tr>
<td>1. 죽음의 의미</td>
<td></td>
<td></td>
<td></td>
</tr>
<tr>
<td>1) 자연현상으로 살의 마지막 과정</td>
<td>38.6</td>
<td>46.3</td>
<td>45.5</td>
</tr>
<tr>
<td>2) 내세의 시각</td>
<td>11.4</td>
<td>6.6</td>
<td>10.3</td>
</tr>
<tr>
<td>3) 영원한 잡</td>
<td>25.0</td>
<td>23.1</td>
<td>22.4</td>
</tr>
<tr>
<td>4) 신의 부름</td>
<td>18.2</td>
<td>15.7</td>
<td>17.6</td>
</tr>
<tr>
<td>5) 학력을 부터 오는 것</td>
<td>6.8</td>
<td>8.3</td>
<td>3.6</td>
</tr>
<tr>
<td>6) 무응답</td>
<td>0</td>
<td>100</td>
<td>0.6</td>
</tr>
<tr>
<td>계</td>
<td>100</td>
<td>100</td>
<td>0</td>
</tr>
<tr>
<td>2. 사후 장기 이식에 대한 반응</td>
<td></td>
<td></td>
<td></td>
</tr>
<tr>
<td>1) 염두에서</td>
<td>18.7</td>
<td>20.7</td>
<td>18.2</td>
</tr>
<tr>
<td>2) 천사나 천적이란</td>
<td>22.7</td>
<td>11.6</td>
<td>12.7</td>
</tr>
<tr>
<td>3) 배우자나 자식에게만</td>
<td>55.8</td>
<td>66.1</td>
<td>64.9</td>
</tr>
<tr>
<td>4) 피하하지 않는다</td>
<td>2.3</td>
<td>1.6</td>
<td>4.2</td>
</tr>
<tr>
<td>계</td>
<td>100</td>
<td>100</td>
<td>100</td>
</tr>
<tr>
<td>3. 만일 사망 시 가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td>
<td></td>
<td></td>
<td></td>
</tr>
<tr>
<td>1) 자세히 알려주기를 원한다</td>
<td>22.7</td>
<td>25.6</td>
<td>33.3</td>
</tr>
<tr>
<td>2) 상황에 따라서 알려주기를 원한다</td>
<td>30.4</td>
<td>30.0</td>
<td>25.5</td>
</tr>
<tr>
<td>3) 알려주기를 원하지 않는 자</td>
<td>40.9</td>
<td>43.8</td>
<td>41.2</td>
</tr>
<tr>
<td>계</td>
<td>100</td>
<td>100</td>
<td>100</td>
</tr>
<tr>
<td>4. 제사에 대한 견해</td>
<td></td>
<td></td>
<td></td>
</tr>
<tr>
<td>1) 직 필요하다</td>
<td>47.7</td>
<td>37.2</td>
<td>38.8</td>
</tr>
<tr>
<td>2) 가급적 유지하고 싶다</td>
<td>31.8</td>
<td>45.4</td>
<td>42.4</td>
</tr>
<tr>
<td>3) 남비가 심하므로 필요하다</td>
<td>4.6</td>
<td>8.3</td>
<td>8.5</td>
</tr>
<tr>
<td>4) 종교적 의미에서 필요없는 의식</td>
<td>6.8</td>
<td>5.8</td>
<td>6.1</td>
</tr>
<tr>
<td>5) 아무래도 좋다</td>
<td>9.1</td>
<td>3.3</td>
<td>4.2</td>
</tr>
<tr>
<td>계</td>
<td>100</td>
<td>100</td>
<td>100</td>
</tr>
</tbody>
</table>

* 동양종교-불교&유교 & 서양종교-기독교&제주교

V. 결론

본 연구는 Sroleidman questionnaire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삼입시켜 작
성한 질문지를 가지고 연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죽음에 대한 의미에 대해 응답자의 45.8%에서
축음은 자연현상으로 삶의 마지막 과정이며 생각하였으며, 노인성의 노인말병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동양중교 (50.1%) 군은 자연현상으로 삶의 마지막 과정이라 하였고, 서양중교 (47.4%) 군이 신의 부활이라 하여 동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였다 (χ²=54.6419, df=10, P<0.01).

배우자 생존유무별에서도 생존해 있는 응답자 (52.4%) 가 하는지 (33.3%) 보다 더 강하게 자연현상으로 삶의 마지막 과정이라 생각하여 동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나타냈다 (χ²=14.7134, df=5, P<0.05).

2. 인간의 죽음을 가장 설이하는 이유로 “가족, 친지와의 데어짐이 설이어서”라고 응답한 응답의 노인성 (51.9%)이 노인말병 (26.0%) 보다 높아 유의성 경제 간의 통계적 차이 (“χ²=25,5470, df=6, P<0.01”)를 발견하였다. 이 이상 감각이 없는 진단서가 이상의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이 응답자의 57.9%로 노인성 (60.6%)이 노인말병 (55.0%)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3. 죽음의 배경에 가족 심장 초상화는 인간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응답자의 51.2%로 치고있으며, 응답자의 79.9%에서 죽고 싶다는 감정을 느꼈다. 그 이유는 노인성이나 노인말병에서 악관의 차이는 있으나 응답자의 28.3%가 경제적인 골반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유의성 경제 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였으며 (χ²=39.7835, df=7, P<0.01)를 발견하였다.

4. 사후행복 경험법으로는 70.1%가 평강을 원하였으며, 노인성의 노인말병보다 더욱 강한 반응을 보였고 국소수자 11.1%에서 의료재해에 기인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사후 장기 이식에 대하여 응답자의 62.7%가 배우자나 친지에게서 무리한 원하였다는데 노인성 (69.2%)이 노인말병 (55.6%)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고 다음으로 노인성 (14.6%)에서는 친구나 친척에게서 무리한 원하는 사람 노인말병 (96.6%)에서는 아무도 제의를 원하여 동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였다 (χ²=11.4258, df=3, P<0.01).

5. 여세나 환경에 대하여는 잘 모르는 것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제자에 대하여는 노인성이나 노인말병의 생존에 유리해야 한다는 응답으로 평균 81.1%였으며, 동양중교 군과 종교를 갖지 않은 응답자는 평균 67.3%가 가까운 유기적 유리하며 이것도 신성중교군에서도 사물의 유기적 성과 종교적 의미에서 필요없는 의식으로 반응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였다 (χ²=49.09, df=8, P<0.01).

참고문헌
박상이, "노인 심리와 그들의 희망," 노인생활, 대한노인회, 1976, 6, pp. 6~7.
이용숙, 노령의 대인 연구, 동덕여대, 1976, p. 239.
Brunner, Medical-Surgical Nursing, New York, Lippincott, 1970, p. 43.
* Abstract *

A Study on the Attitudes toward Death of the Elderly People

Kim, Kwuy Bun*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lderly people's attitude toward death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the issues needed in the planning of health management and care activities for the aged.

The total number of subjects in this study was 354 elderly people who were accommodated in house for elderly people (185) and school for elderly people (169).

The scale for the attitude toward death of aged persons as an instrument of this study was mainly constructed with reference to Schneidman's attitude questionnaire toward death modified of adjust the Korean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attitudes concerning death.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Out of total 45.8% of the respondents consider that death is a natural phenomena and ending of life. The responses on the meaning of death appeared differently; non-religions (48.1%) and oriental religions (50.3%) consider death as a natural phenomena however western religions (47.4%) consider that death is God's call.

   This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 x^2 = 56.6419 \), \( df = 10 \), \( p < 0.01 \).

   Respondents with a spouses (52.4%) think death is a natural phenomena opposed to respondent without spouses (33.3%).

   Thi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 x^2 = 14.7134 \), \( df = 5 \), \( p < 0.05 \).

2. Respondents in the house for aged persons (51.9%) replied. They do not wanted death because it meant a separation from their family as compared to those from school for aged persons (26.0%).

   57.9% responded that they want to be told when death is confronted.

3. 51.2% of the respondents replied that the main factor to influence their attitude toward concept of death was the dying of their friends & relatives.

   79.9% of respondents expressed that wished to die.

   The main reason for dying was economic shortage (28.3%).

4. 70.1% of the respondents want their body to be buried while only 1.1% of the respondents want to donate their body to a medical research.

* Department of Nursing, Kyung Hee University
5. Over two thirds of the respondents replied that they do not believe in a life in heaven or that they will be rebirth.

6. The questionnaire of this study stimulated 56.8% of the respondents to feel that they should spend the rest of their life more effectively and 15.5% of the respondents felt it gave them the opportunity to think about their death seriously.